



김수빈 〈통곡의 미루나무〉 2017, 116.8 x 91.0cm, 순지에 분채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담벼락 안과 밖.

1923년 같은 날 심은 두 그루의 미루나무가 있다.

담벼락 밖 미루나무는 크게 자라났지만,

담벼락 안 미루나무는 비쩍 마른 채 겨우 자라다가 2017년에 결국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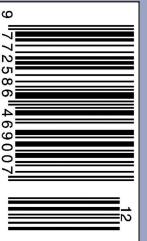
사형장에서 순국한 우리 독립운동가의 깊은 한이 아로새겨진 탓이 아닐까.

화풀에 쓰러진 미루나무의 밑동과 담벼락 밖 미루나무를 동시에 그렸다.

칠흑의 밤, 두 눈을 빛내며 사냥하는 부엉이를 배치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밝은 눈으로 대한 독립을 향해 나아갔던 독립운동가들을 형상화했다.

미루나무는 쓰러졌지만, 그곳을 찾는 후손들은 여전히 선열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독립정신

2020년 11·12월호(통권114호)

2020. 11. 12 월 / 통권 114 호

독립정신

머릿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임정기념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집 1 독립정신 2020 10대 뉴스

특집 2 전태일 열사,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한 노동운동의 출발점
나는 왜 전태일 이름을 부르는가

서평 『손정도 – 자유와 평화의 꿈』

청년에게 듣는다 〈통일교육의 실제〉 강연을 듣고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춘천의 항일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사 연구에 대한 제언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⑭



이봉창 (1901.8.10~1932.10.10, 건국훈장 대통령장)

이봉창은 한인애국단 1호 단원이다. 그는 일본 도쿄로 떠나기 전 사진을 찍을 때 처연한 표정의 김구를 보며 말한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을 사는 동안 인생의 쾌락을 맛보았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웃으며 사진을 찍자.”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거행된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왕 히로히토에게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던졌으나 명중시키지는 못했다. 같은 해 9월 30일 도쿄 대심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제주 조천 3·1만세운동과 서대문형무소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에는 주소지, 본적지, 출생지 등을 기입하는 칸이 있다. 이 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제주가 고향인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는 모두 31명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조천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김시범(金時範), 김시은(金時殷)의 기록이 남아 있다.

조천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조천과 인근의 합덕·신흥·신촌 등에서 일어났다. 조천에는 1873년 제주로 유배당한 최익현으로부터 척사론의 영향을 받아 항일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던 유림세력들이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운동 소식을 접하고 독립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김시학, 김시우 형제가 조천의 대표적인 핵심세력이다. 때마침 김시학의 아들 김장환이 서울의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 3·1운동을 목격하고 독립 선언서를 몰래 숨겨 귀향하면서 시위 소식을 알린 것이 조천 3·1 만세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김장환은 김시범(金時範), 김시은(金時殷) 등과 3월 17일 조천리 미밋동산에서 거사 결행을 다짐했다. 3월 19일까지 고재륜, 김진식, 황진식, 김용찬, 백웅선 등 14명의 동지를 규합하고 150여 명의 주민을 모았다. 거사일은 제주 유림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시우의 기일인 3월 21일로 정하였다. 이들은 거사를 위해 대형 태극기 4장과 소형 태극기 300여 장을 제작하였다. 3월 21일 날이 밝자 미밋동산에 김시범이 태극기를 꽂고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김장환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조천 비석거리까지 행진하였다. 이때 시위대는 500여 명으로 불어났고, 제주성내를 향하여 행진하던 중 신촌에서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당시 조천경찰관 주재소에는 간다(神田) 순사부장, 순사 2명, 보조원 2명 등 총 5명만 배치되어 있었다. 본서(本署)에서 응원대 30여 명이 도착하자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부상자 3명이 생기고 13명이 연행되었다. 이날 시위는 이후 조천지역 만세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3월 22일 조천 장터에서 백웅선, 박두규, 김필원 등의 주도하에 2백여 명이 모여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2차 만세시위를 벌이며 신촌리로 향하였다. 이때 김필원이 연행되고 시위대는 강제 해산당했다. 다음날인 3월 23일에 제3차 시위운동이 전개 되었다. 시위 군중 8백여 명이 이문천의 주도로 합덕리에서 만세를 외치며 3차 만세시위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때 이문천, 백웅선 등 8명이 연행되었다. 제4차 만세운동은 조천의 5일 장날인 3월 24일에 일어났다. 김연배를 중심으로 1,500명의 군중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김연배 등 4명이 체포되고 만세 운동의 핵심 인물 14명이 모두 검거됨에 따라 만세 시위운동은 일단락되었다. 이 항일운동으로 기소된자는 모두 29명이며, 그 중 23명이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동년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현재 남아 있는 김시범, 김시은의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통해 조천 3·1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옥중 생활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사진을 보면 수감자들의 위생을 이유로 머리는 삭발당한 상태이다. 신체검사를 통해 특별한 흉터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당시 사람들보다 키가 조금 더 컸던 것이 흥미롭다. 김시범은 5척5촌으로 약 165cm이며, 김시은이 5척 6촌 3분으로 약 170cm 정도 된다. 얼굴은 의기소침하고, 힘이 빠진 상태로 매우 초췌한 모습이다. 취조와 수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묻어난다. 대구복심법원의 판결이면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에 있는 형무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로 이송, 투옥된 것으로 보아 일제는 김시범, 김시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수감자 카드가 남아 있지 않지만 조천 3·1만세운동에서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도 신체검사와 삭발을 당했고, 고통스러운 취조와 수감생활을 통해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919년 3월 이후 제주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조천 3·1만세운동은 서대문형무소 수감 인물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